

국가 SOC사업, 왜 강원도에서만 지연되나

중앙정부가 먼저 강원도의 국가기간교통망을 건설하자고 지방정부에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인가. 국가기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담보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그 기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건설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현재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계획은 비록 국가가 그림은 그리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건의해야만 딱 하나 나눠주듯 생색내는 체계다. 그렇다 보니 강원도와 같이 SOC 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방정부에서는 매번 중앙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동서간 유일축이었던 왕복 2차로의 영동고속도로를 4차선화할 때도 그랬고, 연장 40km에 2차로였던 동해고속도로의 삼척 연장 요구 때도 그러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안 2차 심의 중에 있다. 도 SOC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부처에서 올라간 예산안이 9월 말 최종 통과되면 내년도 도 SOC사업의 순항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

~양양 구간) 내년 예산은 1,347억 원만 배정돼 실질 소요액 3,000억 원보다 적다. 특히 동서고속도로는 몇 해 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서 동서고속철보다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착공계획이 연기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원안 추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강원인들의 대정부 상경투쟁 등이 없었다면 동서고속도로는 아직도 미완의 구간으로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

동해고속도로 단절구간 또한 고작 817억 원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 조기 완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역시 1,800억 원이 필요하지만 1,000억 원만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중앙정부도 국가예산의 한계로 모든 지방의 요구를 받아 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우는 놈 딱 하나 더 준 다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추진되는 방식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SOC 시설 확충은 참으로 아박했다. 국가 발전적 틀에서 그리고 통일 한국의 국토계획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삼척 가스폭발사고 피해 복구 성금 기탁자 /

△삼척시 기업투자지원과 직원 일동 45만원 △삼척시 회계과 직원 일동 91만원 △삼척시 문화공보실 직원 일동 69만원 △삼척시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 96만원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일동 109만원 △삼척시 도시디자인과 직원 일동 62만원 △삼척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일동 52만원 △삼척시 문화시설관리소 직원 일동 68만원 △삼척시 지역개발사업단 직원 일동 16만원 △신기면사무소 직원 일동 39만원 △성내동주민센터 직원 일동 29만원 △하장면사무소 직원 일동 43만원 △췌주연건설 50만원 △김진환 10만원 △박창현 3만원 △전금옥 1만원 △황철기 3만원 △윤옥남 5만원 △최진현 5만원 △김태갑 3만원 △월드마트(대표:엄재풍) 50만원 △웅진식품동해대리점(대표:박석훈) 10만원 △유한김벌리 동해삼척물류(대표:함영산) 10만원 △삼척경찰서 직원 일동 150만원 △이호원 10만원 △췌어스이앤씨 100만원 △미래조경(주) 20만원 △동해시청 직원 일동 500만원 △원덕수협 100만원 △삼척시청 핸드볼선수단 일동 50만원 △삼척수협 임직원 일동 100만원 △췌동남엔지니어링(대표:김남훈) 500만원 △육상연합회 회장 변영근 외 회원 일동 100만원 △푸른산림기술사 이준 대표외 직원 일동 100만원 △췌동명기술공단(대표이사:신희정) 500만원 △우성건설(대표:이기춘) 100만원 △이상호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전 부시장) 100만원 △동부그룹 1억원 △췌누리텍(대표:민경오) 500만원	△췌에스씨엘이디 1,000만원 △췌대성엔지니어링(대표:장대영) 50만원 △삼척시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 131만원 △삼척시 축산과 직원 일동 41만원 △삼척시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 55만원 △삼척시 보건소 직원 일동 250만원 △삼척시 평생학습관 직원 일동 26만원 △혁촌종합건설(주) 현장소장 유선모 50만원 △세기종합건설(주) 50만원 △췌거승업업 30만원 △거승건설(주) 30만원 △췌다성실업 50만원 △(주)산과들 100만원 △정라여성의용소방대 50만원 △중도건설(주) 50만원 △췌풍곡조경 10만원 △예가건축 50만원 △삼척시아구연합회 50만원 △영월군 350만원 △췌삼도 20만원 △영월군 이장협의회 100만원 △강원여객자동차(주) 500만원 △삼척시 일반건설협의회 800만원 △삼척시 게이트볼연합회 107만원 △그라운드 골프회원 일동 20만원 △대특산업(주) 500만원 △삼척시 해양수산과 39만원 △삼척시 관광정책과 59만원 △삼척시 전략산업과 111만원 △삼척시 대이동골관리소 26만원 △삼척시 기간산업과 73만원 △삼척시 지식개발과 37만원 △노곡면사무소 37만원 △권상근 하장면 변영희장 20만원 △성진상하수도공사 10만원 △삼영기업사 10만원 △스계림건설 10만원 △개영개발 10만원 △남양동 통장협의회 50만원 △대웅공무소 10만원 △근덕면 새마을부녀회 50만원 △근덕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만원 △근덕면 이장단협의회 100만원 △경민통신(대표:박경신) 50만원.
--	--